

<제 670호>

#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 광주과학기술진흥원

### ◆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광주과학기술진흥원(원장 윤석구)은 지난 14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회의실에서 (주)엑센트리 벤처스와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창업보육 및 창업기업 지원환경 조성 ▲기술 인프라 연계 창업 및 R&D 지원 ▲지역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사업협력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동행사 추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연관사업 추진 등 지역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 광주은행

### ◆ 소상공인 지원 위한 '디딤돌 특례보증 업무협약' 체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18일 광주 북구청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문인 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디딤돌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영업시간 제한과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북구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5천만원을 별도 출연했으며, 총 9억7천5백만원의 '북구 디딤돌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 광주테크노파크

◆ 헬스케어로봇실증단지 우수사례 선정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시행중인 '헬스케어로봇실증단지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기반조성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헬스케어로봇실증단지구축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78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헬스케어로봇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지원 등 인허가지원 성과를 기반으로 국내 헬스케어로봇 시장 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으며,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 남화토건

◆ 코로나 의료진에 1천만원 또 기부



남화토건 최상준 회장은 지난 15일 '광주시청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의료진과 현장 근무자를 위해 써 달라'며 사비 1천만원을 기부했다. 지난 1월 1천만원을 기부한 데 이은 추가 기탁으로 최 회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시청 선별검사소 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 없이 밤 늦도록 일하는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개인 자격으로 기부금을 기탁해 잔잔한 미담이 되고 있다.

## 대성포장산업

### ◆ 혁신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대성포장산업 운영심 대표이사는 지난 17일 개최된 전남매일 제3회 중소기업 혁신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성포장산업은 1985년 설립 이래 그라비아 인쇄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했으며, 발전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질높은 제품 생산과 수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매출액 신장과 수출탑, 가족친화, 특허등록(3건) 등 다수의 인증 및 표창을 수상했으며, 코로나19 영향 속에도 노사 상생협력을 실천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인정받았다.

## 보해양조

### ◆ 보해양조-선한병원 지정병원 협약식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지난 16일 광주 서구 선한병원에서 보해양조 김철수 영업본부장과 선한병원 정성현 행정원장, 박성록 진료지원센터장, 이민상 검진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보해양조와 선한병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영진종합건설

◆ 대동문화운영이사회 이사장 선임



영진종합건설 박승현 회장은 현 제4대 허정(에덴병원장) 이사장의 임기가 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5대 대동문화운영이사회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박승현 신임 이사장은 수락 인사말에서 “올해로 창립 27년차인 대동문화재단은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전통문화지킴이 단체로 성장해왔다. 운영이사회는 이러한 대동문화재단의 발전을 후원하는 메세나 조직이다. 역대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문화 나눔을 실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 오비맥주

◆ 2022 최우수 고용기업 선정



오비맥주는 글로벌 인사평가 기관인 '최고 고용주 협회'로부터 '올해 최우수 고용기업'에 선정됐다. 최고 고용주 협회는 매해 120여 개국, 1800여 곳의 기업을 평가해 최우수 고용기업을 발표한다. 협회는 기업의 ▲인사 전략 ▲다양성 및 포용성 문화 ▲직원복지·웰빙 ▲업무 환경 ▲직원역량개발·성장 ▲인재 채용 ▲디지털 HR 테크놀로지 등 인사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오비맥주는 임직원 웰빙과 직원 역량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다양성 및 포용성을 강조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산재예방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 산재보험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지원제외 대상**

- 용자신청 이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 용자신청 이후 3개월 이상 휴업한 사업장
- 용자신청 이후 100만원 이하의 사업장
- 당해연도 보조금 융자 후 자금 사용잔액 용자 신청 접수 불가

**지원금액 / 지원조건**

- 지원금액: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기타 지원 융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조건: 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절차**

1. 지원신청서 작성
2. 서류심사
3. 현장조사
4. 심사결과 통보
5. 융자금 지급
6. 상환금 납입
7. 상환금 납입 확인
8. 상환금 납입 완료

**추진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광역사업부 ☎02-949-0742-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본부장 김무영)는 지난 14일 위험설비를 안전한 설비로 교체할 수 있도록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장기 저리 조건(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사업장당 최대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며, 지원제외 대상은 용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용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이다.

## 한국산학협동연구원

### ◆ 제18회 산학협동대상 시상 개최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사장 김보곤)은 지난 16일 오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 제18회 산학협동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산학협동대상에는 기업부문에서 박헌택 (주)영무토건 대표이사, 자문교수부문에서 정제평 호남대 교수, 유관기관부문에서 주승완 서영대 산학협력단장, 산업인력양성부문에서 손경종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 등 4명이 각각 수상했다.

## II. 광주경충 소식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11기 비대면 ‘드림만남의 날’ 행사>



본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북구행복어울림센터에서 개최된 11기 광주청년일경험드림 비대면 ‘드림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해 기업형 참여자 온라인 화상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349명의 청년들이 기업형 온라인 화상면접에 참여했으며, 최종 선정된 참여 청년은 오는 3월 2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7월 31일 까지 5개월 동안 참여기업에서 일경험을 진행하게 된다.

### <중장년센터 제5,6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달 16,17일 이틀 동안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5,6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62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사무국 일지 (02.14 ~ 02.18)	
02.14(월)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 수행기관 드림청년 면접(~18) * 산학협동대상 심사 * 제23회 노사협력대상 심사면담	02.17(목) * 중장년센터 제6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02.16(수) * 광주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 중장년센터 제5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02.18(금) * 중기청 여성기업 심의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1. 노사 동향

##### ■ 한국노총,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본격화

-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2. 10 정책협약식을 진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위촉
  -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노총의 전체 조직을 대선 대응체계로 재편해 정책연대를 이어나가겠다고 발언
- 한국노총 공공연맹도 2. 14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정책협약식을 진행
  - 공공연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공공기관 임금결정구조 개선,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임금피크제 폐지 및 정년 연장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 ■ 삼성전자 임단협 난항

- 삼성전자 2021년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 14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를 결정
  - ※ 삼성전자 4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2021. 10부터 2021년 임금협상을 진행 중임.
  - ※ [노조 공동교섭단] 전체 직원 총 11만 4,000명 / 조합원 4,500여명 <약 4%>

- 1노조 : (무)삼성전자사무식노조	- 2노조 : (무)삼성전자구미지부노조
- 3노조 : (무)삼성전자노조_동행	- 4노조 : (한)금속노련 전국삼성전자노조

##### [참고] 노사 요구안 주요 내용

사측(최종안)	노측
▲ 조합발전기금 3,000만원 지원 ▲ 임금피크제 및 임직원 휴식권에 관한 제도 개선 협의 등	▲ 전 직원 연봉 1,000만원 일괄 인상 ▲ 매년 영업이익의 25% 성과급 지급 ▲ 1인당 약 107만원 상당 자사주 지급 ▲ 코로나 격려금 1인당 350만원 지급



## 2. 법제 동향

#### ■ 윤미향 의원(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11)

- (발의 이유)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설작업현장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몸에 맞지 않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견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별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되고 있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짧은 기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주요 내용)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의무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 하면서 노동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할 의무를 규정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도록 규정

#### ■ 윤미향 의원(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11)

- (발의 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한편,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자체조사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장 별로 자체조사 방법이 상이한 문제 등 조사 방식의 적정성에 의문 제기
  -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가해자의 범위가 좁다는 의견
- (주요 내용)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자체조사를 객관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조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조사방법이나 외부기관에의 위탁 여부 등에 관하여 피해근로자 등의 동의를 얻게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가해자의 범위를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로 확대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 윤미향 의원(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11)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주요 내용)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전체 사업장·근로자로 확대하고, 현행법의 적용 확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등을 신설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 김도읍 의원(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11)

- (발의 이유) 현행법은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규정,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15일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행정해석 존재
  -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다고 보아 재직기간이 1년인 퇴직 근로자에게는 15일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판결, 일선 기업의 인사 업무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
- (주요 내용)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을 명시